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청바지 광고에서는 버펄로 떼가 도심을 달리는 장면이 통과되었다.

‘ 겨울연가 ’가 아시아인들의 사랑을 받고, 영화‘ 올드보이 ’가 외국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는 시대이다. 우리 광고도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광고가 대중문화의 하나이기에

광고는 그 상업적 목적으로 인하여 천시 받고 멸시되어 왔다. 아마 우리나라 방송광고 심의 현실의 시각에서 본다면 필자는‘ 얕은 상혼의 광고 나부랭이나 만들며 미풍양속을 해쳐 온지가 언 15년이나 된 자 ’일 것이다. 그런 시각이기에 광고는 여타 방송 프로그램보다 심하게 규제를 받는다.

광고에서는 일반 드라마에서 쓰는 언어나 뉴스에서 사용되는 시사용어까지도 때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 온 가족이 다 즐거워하는 일반 코미디 프로에서는 통용되는 우스개 소리도 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슬로건이‘ 다이내믹 코리아 ’인데 광고에서는 이 정도의 외래어 표기를 위해선‘ 슬로건 등록 ’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심의의 시각에서라면 경기도가 펼치는 영어마을 만들기는 국어사용을 망치는 나쁜 사업이 되는 걸까? 남자 몸의 상반신 노출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며 외설적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다르다. 유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워야하고, 겨드랑이 털도 적당량(?)으로 조절해야 한다. 더 기괴하지 않는가?(그렇다면 수영경기는 외설인가?) 문화가 시대의 산물이라면 광고도 우리 사회에 걸맞는 잣대로 심의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광고는 이미 방송의 많은 시간대를 차지하는 중요한 대중문화 컨텐츠가 되었다. 상업적 목적 외에 시청자들에게 광고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광고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방송광고 심의는 꼭 바뀌어야 한다. 시대에 걸맞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광고들을 접해야 한다. 광고주에게는 보다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의로 인해 버려지는 돈이 아깝다. KAA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및 광고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한국방송학회(회장:변동현)는 지난 12월 3일 방송회관에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장:황규환)과 공동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및 광고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콘텐츠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10년에 따른 PP활성화 방안, 한국 방송산업의 제작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광고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다. 심포지엄 관련 자세한 자료는 한국방송학회(www.kabs.or.kr/3219-5725)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광고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 심포지엄

한국광고학회(회장:서범석)는 12월 10일 광고소비자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광고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광고 표현과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고, 소비자의 권리도 지켜야 할 가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에 대한 문재완 단국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와,‘ 부당광고와 소비자 피해 ’관련 손영호 소비자보호원의 광고약관팀장의 발제가 각각 있었으며, 이어 각 주제와 관련,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고학회(743-0766) 또는 광고소비자보호원(597-522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미디어시대의 광고』 심포지엄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김근)는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4년 KOBACO‘ 디지털 뉴미디어시대의 광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순길 코바코 전무이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뉴미디어시대의 방송정책 및 광고산업의 변화, 멀티미디어 방송환경에서의 광고효과와 전망, 유비쿼터스 시대의 광고시장 변화와 전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윤석년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아름다운 간판 이야기』 토론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간판 이야기 ’토론회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훈 옥외광고학회장,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 박영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장, 김영배 건국대 교수, 엄혁 alt-c 대표, 김창우 강원일보 정치부장 등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행사를 주관한 이계진 의원은“ 오늘 행사는 간판문화 개선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처음 열리는 토론회 ”라며“ 비록 다른 나라와 우리의 여건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시민, 상인, 학계,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댄다면 선진 외국이 부럽지 않은 거리와 도시를 만드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고 밝혔다.

『텔레비전 간접광고 :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광고학회와 함께‘ 텔레비전 간접광고의 현황과 정책과제 ’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봉현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기원 한국광고주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광고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손봉숙 의원 홈페이지(http://www.sohnb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